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광중에 계신 주(찬41/새20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 샘 장로 2부/최동주 집사 3부/이양수 집사 4부/최재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나는(I AM) (편곡 David T. Clydesdale)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사무엘상 1:1-11..... All together 다같이  
4부/고린도전서 13:4-7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Young Rak Chung 정영락 목사  
**나의 브닌나**  
4부 ..... Rev. Gab Sihng Chung 정갑신 목사  
사랑, 그 깊은 얼굴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 헌금 특순(2,3부) Offering ..... Bethel Classical Academy Choir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 Rev. Young Rak Chung 정영락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강문구 목사 / Rev. Abel Kang

# 단 한 걸음

## That One Step

올해 예살의 새로운 텀을 시작할 때 찬양이 있었으면 하고 어떤 내용으로 곡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 2월 25일 큐티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었고, 부자였고, 누가에 따르면 관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것인지! 게다가 그는 진솔하였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평소에 너무나도 답을 얻고 싶었던 질문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던 질문이 '영원한 생명'이라니! 만약 예살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저는 그를 정말로 기특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알려주는 이 청년 인생의 결론은 "근심하며 가니라"입니다. 그 기특한 청년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큐티를 하는데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청년은 '뭐? 가진 소유를 다 팔라고? 이 사람이 남의 돈이라고 말을 쉽게 하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갔습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갈등했다는 뜻입니다.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를 떠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두려웠던 것은, 갈등과 고민 끝에 주저주저하다 예수님을 떠나든 욕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떠나든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로 "주어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든, 솔한 갈등과 고민 끝에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겨우겨우 주님을 따르든 그 역시 결과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정말 51대 49의 싸움입니다. 그 한 발짝을 어디로 옮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 한 발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가사를 썼고 조전도사님이 멋진 곡조를 붙여 주었습니다. 예살의 청년들과는 예배 때 함께 고백했습니다. 언젠가 베델의 성도님들과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주께로 향한 한 걸음> 믿음이란 단 한걸음 싸움, 딱 한 걸음을 주께 향하는 것/ 믿음이란 단 한 걸음 싸움, 딱 한 걸음을 십자가로 향하는 것/ 내 한 발짝을 예수께로 내 한 발짝을 십자가로/ 내 한 걸음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옮깁니다/ 한 걸음을 주께로 행할 때 주가 주신 승리 경함케 되리/ 내 한 걸음 예수께 행할 때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리

As we began the new term for Yesalm this year, we have a song that we could all sing together in one accord. I contemplated what content would be good for the song. And on February 25, while meditating on that day's QT, I received a message in my heart from the Lord and began to write the lyrics based on that passage of Scripture. That day's QT passage was from Matthew 19, which tells the familiar story of the rich young man. He was young, wealthy and, according to Luke, a bureaucrat. Oh, how we all desire such things! Moreover, he lived a sincere and honest life. He did not hesitate to ask Jesus the question he had always wanted to ask; a question about "eternal life". How is it that a person, who seemingly has everything, is so concerned about "eternal life"? If there was such a young adult in Yesalm, I would truly admire them. However, the young man ended up leaving disillusioned. Matthew writes that "he went away sad". This admirable young man left with sorrow, because he was troubled about Jesus' words,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come, follow me."

While reflecting on the QT passage, the sentence "he went away sad" impressed upon my heart. Why? The young man did not walk away exclaiming, "What? Sell everything I have? This guy talks so unmindfully about other people's money. What a character." He walked away deeply troubled with worry. To worry means to be conflicted and to think deeply. And at the end of that conflicted contemplation, he resolved to leave the presence of Jesus. What I became afraid of as I read this passage was that, whether one leaves Jesus after some hesitation or leaves after cursing without even looking back, was one and the same sort of response. That's what I was afraid of. But at the same time, these verses were a great comfort. Because, conversely, I realized that it is also the same whether one says, "Lord, I believe!" while abandoning everything to follow the Lord or, following the Lord after some hesitation, having confessed that there is no one but the Lord. In the end, faith is like a battle between 51 against the 49. It is where we take that one certain step that determines our life. When we turn around from the world and take a step of faith toward God, that one step determines our life's eternal destination. And so with this in mind, I wrote the lyrics and Pastor Micah Cho composed a beautiful melody. We sang it together with the young adults of Yesalm during our worship. I hope to one day sing it together with all the believers of Bethel Church.

<One Step Toward The Lord> Faith is taking that one fighting step, that one step towards The Lord / Faith is taking that one fighting step, that one step towards the cross / My one step towards Jesus, My one step towards the cross / That one step I take, with love, in faith, to serve / May that one step towards the Lord bring the Lord's victory, my delight / May that one step towards Jesus make my life the temple of the Lord.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영락 목사

# 나의 브닌나

 사무엘상 1:1-11

1. 한나에게 있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인생에서 브닌나는 문제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브닌나를 만났을 때 내가 받았던 훈련은 무엇입니까?

3. 브닌나를 기도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브닌나를 이겼을 때 나에게 주신 사무엘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 설교를 들은 후 나는 나의 브닌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 적용찬양: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적용하기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올해 고난주간에는 그날의 큐티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본당 예배에서부터 영어 한어 중고등부, 교회학교까지 매일 저녁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매일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깊이 있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 제 가슴 깊이와 닿았던 선포된 말씀을 정리하여 적어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마 27:1-10)을 돌아보면, 가룟 유다가 했던 후회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감정이고 원 상태로 복귀하려는 몸부림이며 세상의 근심과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이전과 다른 선택의 방향성을 택하는 것이며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혹은 군중들의 부추김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오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말씀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 자리를 주님이 선택하시는 자리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이 복된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지애 집사

성극을 보며 받은 은혜가 커서 나누고 싶어 몇 자 올리려 합니다. 성극 중에 한쪽 코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심장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니 큰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슴이 뛰고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으며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니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이어진 주님이 받으시는 찢림과 채찍질은 오로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 임으로 받아들여지니 차마 그 장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 한지요. 하지만 죄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주님 피 값으로 다시 태어난 소중한 우리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선 권사

한때는 슬픈(sorrow) 금요일로 불렸지만, 예수 안에 믿는 이들에게 Good Friday가 된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특별예배가 피날레처럼 지

난주 드려졌습니다. 베델 콰이어가 준비한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이 찬양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역할이신 테너의 굽직한 음성이 울리고 바리톤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소프라노의 마리아, 의상, 분장,그랜드 피아노가 산의 돌로 변한 무대연출과 스크린의 배경까지 수준 높은 어느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땔 수 없었던 마지막 순간에는 베델 콰이어의 합창이 울려 퍼지니 앙코르를 외치고 싶었던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이어진 설교 시간에는 이충경 목사님이 '어둠과 영적 반전의 앵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때 어둠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절규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있는 자로서 마음에 큰 자책이 없는 뻔뻔한 우리를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는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

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임을 증명하는 눈으로 보고 만지는 복음인 성찬식이 이어졌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으로 재림하시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음에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충까지 꼭 찬 성도들 모두가 옆 사람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델의 가정들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 하였습니다.

베델뉴스팀



#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



베델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가장 기다려졌던 부분이 바로 셀 배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인 속회가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어 참석이 어려웠던지라, 베델 공동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설렘으로 셀 배정을 기다리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가족에 둘러싸여 한동네에서 살았기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네 가족 이외에 다른 가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 믿음 좋은 중국 가족이 있어도 힘들고 지친 세세한 감정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셀' 안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국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늘 사랑으로 채움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며 매번 셀 모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에게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점을 주셨다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셀모임을 통해 그것을 나눌 가족이 있다

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함께 해 주고 있는 셀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분들을 통해 내 삶이 주님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음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네! 그렇습니다! 세 겹줄 아닌 24겹 줄로 이루어진 기도의 줄을 힘입어, 또다시 부활절 후 첫 주일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김규연 성도

QTin 간증

##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 26:41-42)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 남편이 혼자되신 어머니를 돌보겠다며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결정했을 때 피할 길을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늘 시험

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저의 육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건 저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하기 싫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기도한 대로 제 마음을 바꿔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이사로 인해 아이들과 멀어지고 정든 친구들과 이웃과 이별하는 게 불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함께 건강한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리더를 만나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목사님들을 통해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교제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우영 집사

### 너희도 온전하여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3-48)



맹세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진실된 언어 생활에 대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

상에겐 사랑을 주지만, 내 비위를 건들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겐 사랑은 커녕 분노만 쌓아가고 있는 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원수라고 여기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도도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나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대상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뿐 아니라 함께 주님의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김은혜 집사

교육부- 부활절 예배

# Happy Easter, 부활의 기쁨!



"우르르 광광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우르르 광광 예수님 다시 사셨다." 18-36개월 아가들의 찬양 소리가 영아부실에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기쁜 소식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아가들의 귀여운 선포가 부활의 감동을 새롭게 전해 줍니다. 작고 어린 아가들인데 찬양과 말씀 시간에 온몸으로 귀를 쫓긋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봉사의 마음으로 영아부 교사를 지원하였지만, 아가들을 통해 받는 사랑과 에너지 배움이 더 큰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가들과 같은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아가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유경 집사(영아부 교사)

부활절에는 아이들이 영롱한 비눗방울처럼 더욱 생기 있고 활발합니다. 아마도 교회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다가 이곳저곳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절 한 주 전은 종려주일이라 고사리 손으로 만든 종려 가지를 만들어 교회 뜰을 같이 걸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부모님을 따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졸리고 피곤할 시간일텐데 예배도 잘 드리고 예쁜 크래프트를 만들며 신나 합니다. 부활절에 주는 계란이나 선물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

기를 선생님들은 소망합니다.

김경란 권사(유아부 교사)

K-1 부서에서는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부활절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TA 봉사자들이 2, 3부 두 팀으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와서 연습하고 성실히 준비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보는 선생님들이 앞에서 연극을 선 보이니 모두 재미있어하며 이야기도 더 쑥쑥 들어오는 듯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그 헌트를 하며 반별로 선생님과 예쁜 사진도 찍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예수님의 무덤을 만드려고 꾸미기 위하여 주중에도 아침 일찍 모여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절의 참 기쁨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 많은분의 열심과 헌신이 있어서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가득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정가영 전도사(K-1)

Happy Easter! 부활의 아침을 아이들의 밝은

웃음으로 힘차게 열었습니다. 유년부는 선생님과 함께 부활절 특별교재: Special Easter Egg Cart로 반별 활동을 하였습니다. 알록달록한 12개의 에그를 열어보면서 그 안에 하나씩 들어있는 상징적인 아이টে็ม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죄와 부활에 관한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에 오히려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예배실 환경 꾸미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절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보라색 풍선이 상징하는 사순절이 끝나고 흰색 풍선과 봄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예배실 앞에서 반별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으며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승진 전도사(유년부)

2023년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은 참 특별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K-5 학생들이 같이 다 함께 찬양 시간과 예배 설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K-1,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교육부 목사님께서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시며 아이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복음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을 이끄시는 팀장님과 4-5학년 학생들도 찬양을 인도하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고난주간의 의미가 담긴 크래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부활 주일에는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스며드는지에 대해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에그에 장식을 하였습니다. 매년 보내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이정연 전도사(초등부)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살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경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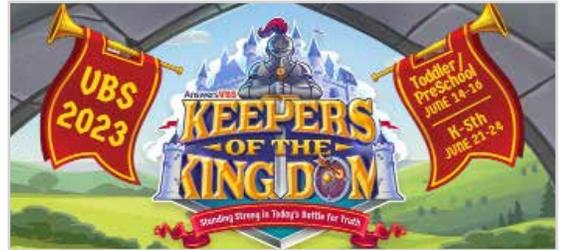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VBS) 등록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 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싸움을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킹덤키퍼로 부르셨습니다! 2023 베델교회 VBS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Keepers of the Kingdom'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영.유아부 VBS와 K-5학년 VBS가 다른 기간에 진행되며, 모든 학생들이 학년별로 스테이션들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각 스테이션에서는 바이블 스터디, 스낵 크래프트, 사이언스, 크래프트, 게임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모두가 기다리는 신나는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텝, 크루 리더와 스테이션 리더 봉사자들은 매주 훈련과 모임을 가지며 전력을 다해 VBS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VBS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영아부, 유아부 VBS 일시: 6월 14일(수)~ 6월 16일(금)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 (점심이 제공 됩니다.)
- ▶ 문의: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213)407-5239
- ▶ Kindergarten-5학년 VBS 일시: 6월 21일(수)-6월 23일(금) 오후 1시-5시 30분, 6월 24(토) 오전 10시-오후 2시반
- ▶ 문의: [K-1]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유년부]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 등록: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http://bkc.org)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5월)	4/23:	①부-김응진	②부-이길수	③부-김병주	④부-김유리
	4/30:	①부-조광종	②부-주용중	③부-장재혁	④부-나승호
	5/7:	①부-김병찬	②부-강현석	③부-김언조	④부-서윤지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5월)	4/22: 강영재	4/29: 김도형	5/6: 고스티브	5/13: 김건중
-----------------------	-----------	-----------	-----------	-----------

강단꽃(4월)	4/16: 노성애, 육상운, 황지은	4/23: 김동심, 선상균, 조미리	4/30: 노성애, 이은지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Kyle Lee(교정치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한일(비뇨/산부인과), 간호사-황선영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익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익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1-3부 예배에는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 담임이신 정영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더불어 4부 예배(예수)에는 한국 예수향남교회 담임이신 정갑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청년 부부를 위한 Q&A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 ◆ 베델 수요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이충경 목사의 '믿음과 의심 사이' 시리즈의 말씀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 튀르키예 지진 현장 방문 구제사역 팀 모집

지난 2월 6일(월)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이재민의 숫자가 150만 명, 간접적 영향을 받은 피해자는 1,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긴급구조팀이 철수한 이후 생존자들의 생필품 공급,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간: 1차 5월 22일(월)~5월 31일(수)

2차 8월 7일(월)~8월 16일(수)

3차 9월 11일(월)~9월 20일(수)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지역과 사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각 차당 18명으로 제한 (현지가 열악한 형편이기에 자매 참석 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합니다)

주최: SWM 실크웨이브/프로젝트 명칭 CES

등록 안내: 본당 앞 코트야드,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 니카라과 단기선교팀 모집

안경, 사진, 의료, 전도, 아이들 사역 등 다양한 사역에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간: 6월 5일(월)~10일(토)

신청: 본당 앞 부스

문의: 정광록 장로 (949) 232-3963

### ◆ 베델 기도학교 4월 연합기도회

기도학교 이후, 매일 기도굴리를 하던 9개의 그룹기도팀들이 연합기도회를 갖습니다. 베델 기도학교 훈련생 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4월 29일(토)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간단한 간식이 준비됩니다.

###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 교회학교 VBS 일반등록

2023 VBS가 'Keepers of the Kingdom'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7면 참고)

대상: 영아, 유아, Kinder-5학년(K-1, 유년부, 초등부)

등록 기간: 오늘(16일)까지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일(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등록처: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

###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한글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고, 한국의 음식, 노래, 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 4월 1일(토)~4월 30(주일)

등록비: \$590(4월 30일 이후 \$30 추가), Child care 오전, 오후 각 \$80

대상: 2022년 기준 Kindergarten-12학년(선착순 마감)

일정: 7월 10일-8월 4일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

등록처: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 ◆ 양로병원팀 재능 기부자 모집

매월 격주로(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인근 지역 양로병원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어르신 분을 섬기는 양로병원팀에서 주신 달란트로 같이 할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찬양, 악기 연주, 공연 등

문의: 이해원 집사 (741)788-3833

### ◆ 부활절 사진 수령

부활절을 맞아 찍으신 기념사진을 1-3부 예배 후에 포토부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 위로해 주세요

故 최수남 권사님(최상인 장로의 모친, 김원미 권사의 시모)께서 4월 12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 My Peninnah

1 Samuel 1:1–11

**1.** What was Hannah's pain?

Apply to Life



**2.** In our lives, Peninnah represents discipline rather than a problem. When you encountered your "Peninnah," how were you disciplined?

**3.** When we overcome "Peninnah" through our prayers, God gives us Samuel as a gift. What was the gift given to you when you won over "Peninnah?"

**4.** After listening to today's sermon, do you think you are able to love your "Peninnah?"

■ **Song in Response:** Hold the Lord's hand and stand up